

## 원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의 발견

폴 고갱 지음 《노아 노아》

회색 도시에 갇혀 사는 사람들에게는 빌딩과 빌딩 틈새로 드러난 하늘 한 조각이 하루 종일 맛볼 수 있는 자연의 전부이기 십상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자명종 소리에 시달려야 하는 아침의 번잡스러움도, 할 일을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사는 직장의 긴장도, 안달복달하며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이나 한살 한살 늘어나는 나이에 쏟아지는 주변의 눈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입으로는 수없이 탈출을 읊조리고 간혹 용기를 낸다고 하지만, 고작해야 며칠간의 휴가가 보통사람들이 감행할 수 있는 일탈의 전부이다. 모두들 저마다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은 과감히 탈출을 시도할 만큼 절박하게 느끼지 못하거나 광기어린 용기가 없는 탓일 것이다.

보통사람과 천재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되는 것 같다. <폴 고갱의 타히티 체류기>라는 부제가 붙었고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고갱의 판화와 그림을 보는 재미를 안겨주는 폴 고갱의 책 《노아노아》(열화당)는 그런 면에서 남다른 광기를 지닌 천재 폴 고갱을 잘 보여준다.

직접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노아노아》에는 극도로 문명화된 프랑스 파리의 화가인 폴 고갱이 그 문명사회에 염증을 느껴 파리를 버리고 달아나듯 타히티행을 결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져 있다. 그림이 곧 삶이었던 그에게는 타락한 문명 속에서 오염되어가는 자신의 그림을, 즉 허물어져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책에는 개인적인 고백과 함께 자연 자체가 살아가는 타히티인들의 삶과 사랑이 들어 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타히티의 신화와 문화를 흠뻑 빨아들임으로써 고갱이 예술가로서 어떻게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 흥미롭다.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처럼 사랑하고 그들 방식대로 살면서 얻어낸 고갱의 힘은 그의 그림 속에 투영되어 있는 원시적인 힘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말 버려야 할 것을 제대로 골라낸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천재였던 것이다. 당연하겠지만, 타히티에서 돌아온 그의 예술에 대해 파리의 문명인들은 거개가 약속이나 한듯이 혹평을 쏟아부었다고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파리의 문명인(?)들 눈에 별 거뻐지는 타히티의 아름다움이 보였을리 만무하다.

고갱은 결국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그가 마지막 숨을 쉰 곳은 타히티에서도 더 들어간 어느 섬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파리로 돌아가 있는 동안 문명인들이 더 심하게 오염시킨 타히티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던 탓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 책을 읽어야 할 또하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소위 문명화되었다는 프랑스인(사람)들이 감히 저질러 놓은 자연과 원시문명에 대한 편협한 경멸과 파괴의 야만성, 그리고 이에 대한 고갱의 통렬한 비판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성숙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40

## 솔직한 전문가적 비평 담아

장정일 지음 《장정일의 독서일기》

한권의 책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발견되고 결정되는가?

어떤 사람은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멋진 미사여구로 치장돼 있거나 고학력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언어로 가득한 책이 그렇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나는 이런 요소들은 책의 가치를 재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책을 읽는 사람의 필요와 그에 따른 감상이 부합되는 정도가 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다. 즉, 독자의 주관이 강력하게 반영되어 판단되는 것이 진정한 책의 가치인 것이다.

《장정일의 독서일기》(범우사)는 이를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는 책이다. 똑같은 책을 두고 훌륭하다고 칭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독하게 비난을 가하는 사람도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어느쪽의 비평에 대해서도 감히 말할 수 없다. 각 개인의 감흥을 서로 존중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친구에게 우연히 건네받아 읽어가면서 왠지 모를 반발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저자는 수백권의 책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여 느낀 점을 진솔하게 기술했는데, 일단은 그 많은 책에 대한 저자의 세심한 분석력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흥미와 목적 위주로만 독서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입장에서 사실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을 빼고서는 비교적 좋은 책을 쉽게 접하기 힘든데, 이렇듯 많은 책에 대해서 조목조목 평을(때로는 사족을) 실었다는 점이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안내 역할을 할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책의 가치를 독단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기준이야 당연히 저자의 지식의 정도와 정서에 기댄, 다분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그것의 표현에 있다. 자신에게 가지없는 책이라 하여 그러한 개인적 무가치함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저자는 몇권의 책이 저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교묘할 정도의 모욕적인 비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저자의 독서 '편식'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고 있어 내심 언짢았다. 혹이 책을 보는 많은 독자들이 여기에 묘사된 다른 책들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질까 걱정된다.

이러한 단점들이 발견되긴 했어도 《장정일의 독서일기》는 전반적으로 장정일의 왕성한 독서력과 전문가다운 비평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즐거웠다. 다 읽고 나서 참 많은 책을 읽은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자가 좀더 부드러운 시선으로 문학을 평가하는 자세였다면 더 훌륭했으리라 생각한다. 얻는 게 있는 책이라는 사실엔 틀림이 없다. 기회가 닿는다면 다시 한번쯤 정독해 보고 저자의 진의를 파악해 보고 싶은 책이다.

김지호

서울 종로구 청운동 청운아파트 4동 G203호

## 4·3사건의 역사적 아픔

한림화 지음 《한라산의 노을》

제주도는 국내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아름다운 관광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섬에도 아픔이 있었다. 제주민들 가슴에 응어리져 풀어지지 않는 비극, 이 비극의 뚜렷한 형체는 바로 4·3사건이다.

《한라산의 노을》(한길사)은 4·3사건을 테마로 한 장편소설이다. 처음엔 노을진 한라산의 모습을 산뜻하게 박은 표지에 끌려 집어들었으나, 곧 나는 뒷면에 써여 있는 4·3이라는 숫자를 보고 강렬한 자극을 느꼈다. 남의 감

취진 아픔을 엿보는 일에 호기심을 느끼듯, 제주도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해야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4·3사건에 대해서라면 국사시간에 얼핏 스쳐 지나듯 배운 기억도 난다.

책을 펼친 첫장부터 낯설지만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방언이 쏟아져 나왔다. 책장을 넘길수록 방언은 익숙해졌고, 현재 관광지로 변한 제주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섬사람들의 생활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처음의 호

기심이 서서히 두려움과 경악으로 전도되기 시작했다.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하고, 남북단일정부를 바라던 제주민들을 비극적인 학살로 몰고간 것이다. 그들의 바람은 비극 그 자체였다. 해방후 바다 건너 남쪽 섬 제주에서는 남한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렸고, 마을은 불탔으며, 가족은 물론 남녀노소 할것없이 무참히 학살당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남이 들을까 비밀스레 오가던 말들이 이제야 《한라산의 노을》을 붉게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 세권짜리 소설은 작가가 4·3의 경과를 직접 겪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본 사람들 중에 심중괄구는 나처럼 가슴이 저린다거나 분노로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듯,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가 있기까지 겪은 아픔을 알고 이해하는 길이 최선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를 알려면 4·3사건을 또렷이 기억하여야만 한다. 아름다운 관광지인 제주도가 겪은 아픔을 알고 나니 제주도가 더 아름답게 다가왔다.

작가 한림화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제주도를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섬으로 재인식할 기회를 주었다. 4·3사건 때 무참히 밟힌 녀들의 한과 제주민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앙금이 조금이나마 풀어졌으면 좋겠다.

배기택

서울 은평구 응암동 3-27